

마포서대문지부

## 북한산 국토환경청결운동



**마포** 서대문지부(지부장 김길래)는 6월3일 북한산에서 회원들과 국토환경청결운동 및 산행단합대회를 개최 하였다.

김길래 지부장은 공원전체가 도시지역으로 둘러싸여 도시지역에 대한 “녹색허파”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천만 주민들의 자연휴식처로 크게 애용되고 있고 수도권 어디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교통체계와 거대한 배후도시로 연평균 탐방객이 500만에 이르고 있어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북한산에서 회원들과 함께 국토청결운동을 펼치는 것이 남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북한산 국립공원은 지형적으로 볼 때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산맥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이령을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는 도봉산 지역, 남쪽으로는 북한산 지역으로 크게 나뉜다. 남쪽의 북한산 지역은 최고봉인 백운대를 정점으로 주능선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북으로는 상장봉, 남으로는 보현봉에 이르며 다시 사방으로 굽직한 지능선을 뻗쳐 웅장한 산세를 이룬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 전체의 중심에 높이 솟아 그 웅장함을 자랑하는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와 노적봉 일대의 암봉군은 북한산 경관의 으뜸으로 꼽힌다. 북한산의 다른 이름인 삼각산도 북한산을 멀리서 볼 때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 등 세 개의 높은 암봉이 마치 뿔처럼 날카롭게 솟아 있는 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숙종 37년(1711년)에 축성한 북한산성과 신리말 도선국사가 창건한 도선사, 조선 중종 때 신월 선사가 창건한 화계사, 신라의 고찰 승가사·진관사·망월사 등의 유적이 있다.

부천시지부

## 저탄소녹색성장 실천결의대회 및 단합대회



**부천** 지부(지부장 한인수)는 박기준 중앙회장과 지부임원 그리고 회원사가족 등이 참석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실천결의대회 및 단합대회를 시흥시 대야동 산들레가든에서 실시하였다.

한인수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부천은 복숭아가 많이 난다고 하여 예로부터 ‘복사골’이라는 별칭으로 불러 왔다면서 그동안 침체되어있던 부천시지부가 오늘의 계기로 해서 더욱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오늘 협회의 역할인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소임을 다하고자 다짐





하고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본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봉사활동에 적극참여 할 것이며 지부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합대회를 가질 것 이라 하였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격려사에서 기쁨은 더하고, 미움은 빼고, 슬픔은 나누고, 즐거움은 곱하면 협회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부천회원들의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아름다운 것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라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랑을 이제 베풀 때라고 하였다. 우리 부천회원들이 소중한 봉사정신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단합대회에서는 녹색 팀과 환경 팀으로 나누어서 피구, 제기치기, 훌라후프, 등으로 경기 하면서 친선과 화목을 도모하였으며 린나이 스마일, 선진금속, 송내수도, 세징수도, 부천건재, 대신인력 등이 협찬하였다.



강북지회

## 에너지절약과 국토환경청결운동 및 전국보일러시공인 단합대회



**강북** 지회(지회장 송용곤)는 지난 6월25일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소재 왕방산 깊이울 계곡에서 박기준 중앙회장과 지부임원 및 회원가족 그리고 협력업체 등이 참석하여 에너지절약과 국토환경청결운동 및 전국보일러시공인 강북지회 단합대회를 실시하였다.

송용곤 지회장은 산림이 울창하고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 계곡 주변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며 맑은 계곡물은 항상 수량이 풍부한 곳에서 회원가족여러분과 함께 에너지절약과 국토환경청결운동 및 전국보일러시공인 단합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그 어느 때 보다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박기준 중앙회장은 강북지회는 지회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들의 협조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협회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으며 특히 구청과 관계부처와의 친밀하게 협조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협



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하였다.

왕방산(737.2m)은 포천시와 동두천시 경계를 이루면서 우뚝 솟아 있는 왕방산은 예로부터 포천시의 진산으로 불리어 왔으며 산림이 울창하고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 계곡 주변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며 맑은 계곡물은 항상 수량이 풍부하다.

왕방산 정상 동쪽 산기슭에는 왕방사(보덕사)가 있는데 신라 헌강왕 3년(872년)경에 도선국사가 정업을 닦고 있을 때 국왕이 친히 행차하여 격려하였다 해서 산이름을 왕방산이라 불리어졌고 도선국사가 기거하던 암자를 왕방사라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왕방산 산행은 포천 시청앞에서 시작하여 호병골 왕방사(보덕사)를 경유해 오르는 길과 포천읍에서 심곡리 가는 시내 버스를 타고 무력고개에서 하차하여 능선으로 오르는 길이 있고, 무력고개 넘어 심곡리 깊이울저수지를 지나 깊이울계곡으로 오르는 길이 있다.

보통 무력고개나 왕방사(보덕사)에서 오른후 하산은 서북능선을 타고 국사봉으로 가다 안부에서 오른쪽 깊이울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이 무난하다. 동두천쪽에서는 오지개고개에서 시작하여 왕방산 정상에 오른 다음 무력고개나 깊이울계곡으로 하산할 수도 있다.

깊이울유원지 왕방산에서 발원하는 깊이울계곡 주변은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자연발생 유원지이다. 계곡 물로 채워진 깊이울 저수지에서는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 넓지 않은 저수지 주변으로 울창한 잣나무와 소나무들이 드리워 있어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야영장을 비롯해 급수대·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 가족 나들이 코스로 적당하다.

이곳에서 야영을 하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운치있는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포천시내에서 56번(전곡방면)버사이용 (1시간간격) 심곡2리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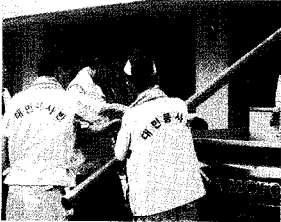


대구경북지부

## 제2차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봉사활동실시



**대구** 경북지부(지부장 서창호)는 6월 17일 지부임원 및 회원30여명이 참석하여 남구지역의 저소득가정 등에게 수해 대비 보일러 70여 가구를 점검을 하여 수리·배관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창호 지부장은 지난 5월에도 30여세대의 저소득층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지부장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는데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여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대구경북지부 봉사단은 보일러 온돌배관 교체공사 및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대구경북지부 예천지회

## 대구경북지부 예천지회 현판식



**대구** 경북지부(서창호 지부장)관할의 예천지회) 예천지회(지회장 김석봉)는 지난 6월22일 예천군, 읍 백전리 지회 사무실에서 지부임원과 예천 지회장 및 지회 회원 등이 참석하여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서창호 지부장은 맑은 물과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 인정이 넘치는 충효의 고장 예천에서 우리협회가 탄생된 것을 축하하고 예천지회장과 임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하였다.

김석봉 예천지회장은 우리 예천이 1300여년의 오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북 북부의 소백산맥에 위치한 배산임수의 명당지역으로 경북 신 도청이전지로 선정된 살기 좋은 고장이며, 특히 청정한 환경 속에서 재배한 사과와 쌀, 참기름, 예천 참우, 뽕잎차 등 많은 농·특산물과 낙동강 유일의 삼강주막, 육지속의 섬 회룡포, 세금내는 나무 석송령, 물 좋기로 소문난 예천온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호 국제양궁장, 곤충생태체험관 등 관광과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라면서 21세기 경북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우리 예천의 발전에 우리 예천지회도 적극 동참하여 나가겠다고 하였다.



성남지부

## 국토환경청결운동과 가족단합대회

**성남** 지부(지부장 남예진)는 지난6월27일 남한산성에서 중앙회(회장 박기준. 부회장 박중배), 경기도의원 허신행, 민주당 전석원 부대변인과 지부임원 그리고 회원 가족 등이 참석하여 국토환경청결운동 및 가족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남예진 지부장은 우리성남시민의 휴식처인 남한산성에서 국토환경청결운동과 가족단합대회에 참석하여준 회원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박기준 회장은 성남회원들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협회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가족단합대회가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지부가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고 하였다.

허신행 경기도의원은 주변 시민들에게 훌륭한 휴식처이자, 건강을 위한 등산 산책코스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남한산성에서 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초청하여 주어서 감사드린다면서 도의원으로서 설비인들의 가려운 곳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박중배 부회장은 우리 성남지부가 전국에서 단일지부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 가족분들의 협조가 있었다면서 건설적인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협회를 이끌어어나가고 하였다.



▲ 허신행 경기도의원

▲ 전석원 민주당 부대변인





병자년 남한산성, 47일 동안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었나.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1636년 병자년 겨울, 청나라 10여만 대군이 남한산성을 에워싸자 조선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다. 죽음 속에 자존이 있고 삶 속에 치욕이 있으니,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럽혀질 것인가. 쓰러진 왕조의 돌판에 대의는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는 척화파와 삶의 영원성은 치욕을 덮어서 위로해줄 것이라는 주화파. 그들은 47일 동안 칼날보다 서늘 푸르게 맞선다. 성 안팎에 붉은 기어코 오는데, 살 길은 실천 불가능한 자존과 실천 가능한 치욕 사이로 뻗어 있었다.

“실천 불가능한 정의인가, 실천 가능한 치욕인가?”

1636년 음력 12월, 청의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눈보라를 몰고 서울로 진격해 왔다. 병자호란이었다. 정묘호란을 겪은 지 불과 9년 만이었다. 방비를 갖추지 못한 채 척화를 내세우던 조선 조정은 정묘호란 때처럼 다시 강화도로 파천하려 했으나,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돌 수밖에 없었다.

작가 김훈의 신작 장편 『남한산성』은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1월 30일까지 47일 동안 고립무원의 성에서 벌어진 말과 말의 싸움, 삶과 죽음의 등처에 관한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낱말의 기록이다. 그해 겨울은 치열리도록 모질었다.

“주전파의 말은 실천 불가능한 정의였으며, 주화파의 말은 실천 가능한 치욕이었다.”

쓰러진 왕조의 돌판에도 대의는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며 결사항쟁을 고집한 척화파 김상헌, 역적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삶의 영원성은 치욕을 덮어서 위로해줄 것이라

는 주화파 최명길, 그 둘 사이에서 번민을 거듭하며 결단을 이루는 임금 인조. 그리고 전시총사령관인 영의정 김류의 복심을 숨긴 좌고우면, 산성의 방어를 책임진 수어사이시백의 '수성守城이 곧 출성出城'이라는 험걸찬 기상은 남한산성의 아수리를 한층 비극적으로 형상화한다.

역사에 오르지 않은 등장인물은 더욱 흥미롭다. 보기 드문 리얼리스트인 대장장이 서남식, 김상헌의 칼에 쓰러진 송파나무의 뱃사공, 적진을 뚫고 안개처럼 산성에 스며든 어린 계집 나무 등은 소설 『남한산성』의 상징을 훑어보는 존재들이다. 그리하여 병자년 겨울과 이듬해 봄, 조선 시작 앞에 갈 수 없는 길과 가야할 길이 포개진다.

“치욕을 기억하라!”

3년 만에 선보이는 전작 장편 『남한산성』에서 김훈은 조국의 가장 치욕스런 역사 속으로, 가장 논쟁적인 담론 속으로 곧장 뛰어든다. 이 점에서 『남한산성』은 작가 이력에서 새로운 마디를 이룬다.

앞선 소설 『갈의 노래』와 『현의 노래』 역시 역사를 다루지만, 그것은 역사의 무게보다 존재의 무게에 방점을 둔다. 『남한산성』은 조선 왕이 '오랑캐'의 황제에게 어마에 피가 나도록 땅을 쫓으며 절을 올리게 만든 역사적 치욕을 정교한 프레임으로 복원하고 있다. 47일간 갇힌 성 안의 무기력한 인조 앞에서 벌어진 주전파와 주화파의 치명적인 다툼 그리고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고통 받는 민초들의 삶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무섭도록 끈질긴 질감을 보여준다.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이고, 씻을 수 없는 역사였다.

김훈 특유의 냉혹한 행간 뒤에 숨겨진 뜨거운 말의 화살들은 독자를 논쟁의 한가운데

로 내몬다. “죽어서 살 것인가, 살아서 죽을 것인가? 죽어서 아름다울 것인가, 살아서 더러울 것인가?” 작가는 주화를 편들지도, 주전을 편들지도 않는다. 다만 지도층의 치열한 논쟁과 민초들의 찡찡한 삶을, 연민을 배제한 시각으로 돌아볼 뿐이다.

왜 '남한산성'인가?

그해 겨울은 일찍 와서 오래 머물렀다. 강들은 먼 하류까지 옥빛으로 얼어붙었고, 언강이 터지면서 골짜기가 울렸다. 그해 눈은 메말라서 버스럭거렸다. 겨우내 가루눈이 내렸고, 눈이 걷힌 날 하늘은 찢어질 듯 팽팽했다. 그해 바람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습기가 빠져서 가벼운 바람은 걸마다 날아서 있었고 토막 없이 길게 이어졌다. 칼바람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눈 덮인 봉우리에서 회오리가 일었다. 긴 바람 속에서 마른 나무들이 길게 울었다. 주린 노루들이 마을로 내려오다가 눈구덩이에 빠져서 얼어 죽었다. 새들은 돌맹이처럼 나무에서 떨어졌고, 물고기들은 강바닥의 빨 속으로 파고들었다. 사람 피와 말 피가 눈에 스며 있었고, 그 위에 또 눈이 내렸다. 임금은 남한산성에 있었다.

... 김훈의 『남한산성』 중에서

김훈은 370년 전의 치욕을 왜 21세기인 지금 다시 꺼낸 것일까? 작가는 무엇보다 '치욕을 기억하라(memento infamia)'고 말한다. '삶은 치욕을 건디는 나날'이라고 말한다.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더럽혀지는 인간들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역사가 삶과 죽음의 기록이라고 할 때, 치욕의 역사는 살아 낸 삶의 이력이다. 이 치욕이 단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 미래형이 될 수 있음을 작가 김훈은 에둘러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부산경남지부

## 석광준회원 부산진구의회의원당선

주민이 원하는  
참신한 서민의 일꾼!  
석광준입니다.



**학력 및 경력사항**

- 동의과학대학 부동산 경영과 재학중
- 육군 병장 만기 전역
- 부암동 민중통일협의회 회장(현)
- 전국 보일러설비시공협회 부산지부 감사(현)
- 대한주택 수리공사 대표(현)
- 부산진구 청년연합회 부회장(역임)
- 부암1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역임)
- 부산진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역임)
- 부암동 새마을금고 이사(역임)
- 부암2동 청년회 회장(역임)
- 부암2동 자유총연맹 위원장(역임)
- 부암2동 재향군인회 회장(역임)
- 부암2동 동정지문위원회 위원(역임)
- 부산진구갑 부암동 한나라당 협의회(장)역임)
- 부산진구갑 부암동 한나라당 운영위원(역임)

사무소 : 부산진구 부암1동 38-5  
☎ 802-9041 Fax. 051-804-9051

한나라당 1가 석광준

**부산** 경남지부(지부장 권평준)는 석광준 감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진구 구의회의원에 당선 되었다고 중앙회에 보고하여왔다.

권평준 지부장은 말보다 성실함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석광준 감사는 투철한 사명감과 실천력으로 그동안 협회발전을 위해 활동을 하여왔다면서 주민이 원하는 참신한 서민의 일꾼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석광준 의원은 우선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확실히 해내겠다는 일념 하에 의정활동을 하겠으며 모든 일은 주민과 함께 상의해서 풀어나갈 것이며 작은 일이라도 약속은 확실히 실천하고 결과를 확인시켜 드릴 것이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듣고 찾아가서 풀어주는 구의원이 되겠으며 구정실임을 찾아서 잘 챙기고 초지일관 항상 낮은 자세로 일하며 언제든지 주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석광준이 되겠다고 하였다.